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미국 및 유럽 회원들을 만남

6월 23일에 88회 생신을 맞이한 가운데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6월 한달 동안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두 대륙을 거쳐 5개국을 방문하는 8일간의 여행을 감행하여 영국 프레스턴 성전을 헌납하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유타대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였으며,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부장들과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지냈다.

메인주 포틀랜드시

힝클리 대관장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지의 회원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고 프레스턴 영국 성전을 헌납하고자 유럽으로 가는 길에 6월 2일 미국 메인 주 포틀랜드 시에 들렀다. 그 분은 그곳의 한 시민 회관에서 메인과 뉴햄프셔 등지의 스테이크에서 온 3,000여명의 회원들에게 말씀을 했다. 당시 북미 북동 지역 회장이던 말린 케 이 켄슨 장로가 동석했다. 힝클리 대관장의 부인인 마조리 자매가 이 여행에 동행했다.

“불과 25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회원의 55% 이상이 유타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이 말했다. “그 당시 일부는 캘리포니아 주, 애리조나 주, 아이다호 주 등지에 살았고, 여기 저기에 조금씩 산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강한 교회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주요 도시는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세계 160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천만 명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같습니다. 매주 주일이면 전세계 2만 4천여 집회소에서 성도들이 모여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공과를 공부하고 같은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가 “위대한 친목 조직”이라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찬 모임동안 경건함을 유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찬 모임 중에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일단 예배실에 들어서면 정숙하고, 경건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성찬 모임에서 보다 경건을 유지하여 처음 참석한 사람들이 이 사업의 영광과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는 사랑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뉴햄프셔 엑스터 스테이크의 로렌스 지부(서반이어) 지부장인 제이미 리베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곳에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프랑스 파리

6월 4일에 힝클리 대관장은 대서양을 건너 파리에 도착했다. 그날 오후, 그는 베르사유 교회에 모인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날 밤 파리 시내의 두 개 스테이크와 교회 지역의 세 개 지방부에서 모인 2,400여명의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평일인데도 그처럼 많이 모인 것을 보시고, 힝클리 대관장은 이같이 말씀했다. “이렇게 와 주신 것에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에서 오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유럽 서 지역 회장인 디히터 에프 우흐트 도르프 장로가 동석했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경관과 파리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격찬한 후, 힝클리 대관장은 말이 었다. “이 위대한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확신을 마음 속에 지니신 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것을 놓치고 계신 것이며, 여러분 모두는 그러한 확신을 얻을 기회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일들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이 이를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여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



힝클리 대관장이 메인 주 포틀랜드에서 3,000여명의 청중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피소를 지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스러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을 마치면서 프랑스에 성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전쟁이 끝난 후 제가 이곳에 왔을 때에는 교회 회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약 30,000여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풀어오르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성전을 가질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 부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지 알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도시나 혹은 근교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님의 전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가기 위해 프랑크푸르트로 5시간 동안 여행하거나 6시간을 들여 줄리코펜(스위스)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가 된다면, 그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주님의 전인 성스러운 성전을 지어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님의 성전에서만 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때가 빨리 오기를 간구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6월 5일, 힝클리 대관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에서 8,000여명이 힝클리 대관장의 말씀을 들음.

로 날아가, 약 8,000여명 가량이 운집한 체육관에서 말씀을 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부모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녀들이 여호와와의 교혼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가 크게 평강할 것이(이사야서 54:13)’며’ 라는 경전의 말씀은 주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훈련자이며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신앙과 진리 가운데서 양육할 기회와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깊이 감사하게 될 날이 이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녀를 바라 보면서 그들에게서 선함과 덕과 친절함과 사랑과 평안과 성취가 넘쳐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의 회원인 마가렛 앤 드루몬드 자매는 그날 오후 선교사들에게 말씀하고자 한 집회에 들른 힝클리 대관장에게 꽃을 증정했고, 그날 저녁 회원들과 함께 하는 대회에서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한 단원으로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경험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이곳에 온 것에 대해 매우 큰 기쁨을 느낍니다.”

스위스, 제네바

힝클리 대관장은 프레스턴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고자 영국으로 날아가기 전에 유럽 본토에서의 마지막 기착지인 제네바에 들러 프랑스의

니스와 리옹, 그리고 스위스의 제네바, 취리히, 베른 등지에서 모인 4,2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다.

“저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망명처가 되어왔던 이 제네바에서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다. “저는 종교 개혁이 하나

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복음을 가르치고자 천사가 내려 올 또 다른 시대를 위한 예비의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알았지만, 대범하게 맞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요셉 스미스도 14세의 나이로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롱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핍박하느냐?’(요셉 스미스서 1:25)라고 말하는 데서 그의 외로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을 끝마쳤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굳건히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험상궂은 얼굴로 위압하며, 친구들이 여러분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서 충성히 자라나야 합니다. 힘차게, 조용하게,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흐트도르프 장로는 힝클리 대관장의 유럽 방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이 영광스러운 날들은 유럽에서 교회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모임이 끝날 때마다, 방문자들은 서로를 포옹하며 살아계신 예언자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타 대막 졸업식

6월 12일에 힝클리 대관장은 유타 대학에서 1998년도의 졸업생 8,000여 명에게 연설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다. 힝클리 대관장은 1932년에 이 대학을 졸업했고, 1992년에 이곳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공중 곡예 그네를 타는 사람처럼, 우리는 매우 편안하게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책이 출판되겠지만, 미래의 기회는 전자 출판에 있습니다. 우리 수중에는,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지식을 모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놀라운 도구가 있습니다. 원자는 선용되기도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과학의 창조는 너무나 무한하여 인간의 꿈조차 나약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 졸업생으로 이 기적의 세계 한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구가 여러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가족을 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건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족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당부하건대 이러한 파국을 확산시키는 대열에 참여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오히려 이같은 파국을 줄이는 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졸업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하도록 당부했다.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는 가운데 자신의 시간의 일부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곤경에 처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비탄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목소리가 그저 포기하고 말았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삶을 놀랍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을 잡는 것으로, 결혼을 하는 것으로, 세상의 사치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수입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것이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1998년 6월 7일에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영국 프레스턴 성전이 헌납됨



5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열린 성전 일반 공개에 약 123,000여 명이 다녀갔다. 사진 촬영: 존 필립슨

해 이곳을 재헌납 하는 기도를 드렸다.

헌납 모임에서 말씀하신 분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라드 장로와 제프리 알 홀렌드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이며 성전부 집행 책임자인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와 유럽 북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세실 오 사뮤엘슨 장로, 스펜스 제이 콘디 장로, 더블류 롤프 카 장로 등이다.

성전 헌납이 있기 전인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진 성전 일반 공개에 약 123,000여 명의 사람들이 성전 안을 구경했다. 약 70여명의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기자들이 언론인 투어에 참석했고, 정부 지도자 및 성전 인근 주민들을 위한 특별 투어도 가졌다. 24개 스테이크에서 온 약 2,500여 명의 회원들이 성전 일반 공개 기간 동안 자원 봉사자로 일했다. 자매 선교사들은 안내석에 배치되었고, 복음 선교사 장로들은 특별히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한 안내를 담당했다.

프레스턴의 교외에 있는 홀리의 한 교차로 부근에 위치한 성전은 6,000 평방미터에 3층짜리 건물로 4개의 의식실과 4개의 인봉실을 갖추고 있다. 모로나이 상은 높이 45미터인 탑의 꼭대기에 세워져 있다. 성전은 영국 북부, 북부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및 북부 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스테이크 21개와 지방부 2개의 회원들이 이용하게 된다.

헝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주님과 성약을 맺고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세로 엔다우먼트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이 이 제단 위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신권의 권능 아래 가족으로 함께 인봉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주 성전을 방문하여 죽은 자를 위해 위대하고 비이기적인 대리 사업을 행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이 오실 때 지구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있는 대리인을 통하여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신임 선교부장들이 훈련을 받음

에서 열린 연례 선교부장 세미나에서, 110명의 신임 선교부장들과 그들의 부인들이 대관장단을 비롯한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관리 감독단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6월 26일에 가진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새로운 개종자들은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 몹시 난감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종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책임은 지역 와드와 지부에 있지만,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참된 개종, 곧 삶이 변화되며 영원히 지속되며 세대를 걸쳐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개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참례는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선교사는 실패한 것이며, 교회의 등록 회원수가 통계적으로 늘어난 반면에, 실제 회원수는 전혀 늘어나지 않으며, 개종의 열기는 싸늘하게 식은 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선교부장들과 그들의 부인에게 그들이 선교사들을 위해 키워야 할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러분들의 최우선 책임은 선교사 관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교사는 아주 특별한 자원입니다. 극히 드문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그들의 모친들이 교회에 2년 간 빌려준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6월 24일에 신임 선교부장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떠한 선교부도 선교사와 교회의 회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루지 않고서는 최상의 잠재력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우리가 육체적인 힘에 의존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원 소개 프로그램은 그 한 예로 우리가 회원 조직과 함께 일할 때 우정이나 친밀한 교우 관계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선교부장과 스테이크 부장단과 지방 부장단 모두가 선교사의 협력

영국 프레스턴 성전의 헌납식 첫번째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이 장엄한 성전이 당신께서 선택한 종들이 극심한 가난과 큰 희생의 날들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르친 이 아름다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16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영국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에서 당신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강화시켰던 개종자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6월 7일부터 10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프레스턴 성전에서 가졌던 헌납 모임에는 18,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새로운 성전은 스테이크 센터와 선교사 훈련원, 가족 역사 센터, 배부 센터, 성전 봉사자 숙소, 성전 선교사 숙소, 구내 건물 등을 포함한 복합 건물이다. 헝클리 대관장이 헌납 모임 13개를 감리했고,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나머지 두 헌납 모임을 감리했다.

헝클리 대관장의 프레스턴 방문은 메인 주와 프랑스, 독일, 스위스를 걸친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였다. 영국에 오기 전에 몬슨 부대관장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 참석하여 말했으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복음 전파를 위

자가 된다면, 우리의 선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월 23일 세미나의 첫 시간에 대관장단의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이같이 말씀했다. “이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와 그가 세상에 전해준 물문경에 관한 우리들의 간증이 권세와 권능과 확신에 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선교부장들에게 그들의 희생에 대해 칭송하면서,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또 이같이 말했다. “여러분과 선교사들을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는 말그대로 수백만에 달하고 있으며,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세미나의 여러 모임에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조셉 비 위스런 장로,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곱 명, 관리 감독단의 리처드 시 에즐리 감독 등 여러 총관리 역원들이 참석했다. 교회에는 현재 150여 개국의 331개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58,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다.

첫번째 소규모 성전의 일반 공개

교회 역사상 가장 소규모로 건립된 성전이 유타 남부 적막도 지역에서 7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새로운 유타 몬티셀로 성전의 건립은 여러 말일성도 집회소의 반박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성전은 다른 모든 주님의 전에서 볼 수 있는 격조와 기능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그 건물은 동일한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건립되었다고 유타 남부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벤 비 벅크스 장로가 말했다.

새로운 성전은 1997년 가을 연차 대회에서 고든 비 힐클리 대관장에 의해 발표된 소규모 성전 가운데 첫번째로 건립된 것이다. 이 성전은 건평 650 평방미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비하여, 최근에 헌납된 영국 프레스턴 성전은 6,000 평방미터의 건평을 갖고 있다. 성전에 부속된 집회소는 1,700 평방미터이다.

부속 집회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벅크스 장로는 말했다. “이 예배당이 참으로 훌륭하지만, 성전은 교회의 예배당과는 다릅니다. 성전은 헌



새롭게 지어진 유타 몬티셀로 성전은 건평이 650평방미터에 불과하지만, 교회의 다른 성전에 못지 않은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납되면 주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정밀하고 완벽하게 짓습니다.”

과거의 성전과 같이 새로운 성전도 해의 왕국 실한 개와 침례한 한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성전에는 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의식실이 한 개 밖에 없는 데 보다 적거나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휘장으로 방 한쪽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외벽은 회백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한 개의 침탑 위에는 흰색으로 주조된 아크로 모로나이상이 세워져 있다. 과거 성전과는 설계나 구성에 있어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다.

힐클리 대관장이 연차 대회에서 새로운 소규모 성전 건립을 발표한 지 몇주 지나지 않은 11월 17일에 이 성전의 기공식이 열렸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와 멕시코 후아레스 콜로니아에 건설 중인 다른 두 개의 소규모 성전도 함께 기공되었다.

교회 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이비드 메이 형제는 몬티셀로 성전이 미래 소규모 성전의 원형이 되겠지만, 몇 가지 면에서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리지와 멕시코의 성전은 몬티셀로와 기본적인 평면도는 같지만, 독특한 채색 유리, 석재 외벽, 침탑 등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리지와 후아레스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초기 소규모 성전에 인봉실과 엔도우먼트 실을 하나씩 더 갖추게 될 것이라고 메이 형제는 말한다.

이 소규모 성전과 교회의 일반 성전과의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의식은 성전장과의 약속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몬티셀로 성전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두 차례 의식을 가지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하루에 다섯 차례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약속을 하지 않고 의식에 참여하고자 오는 사람은 자리가 남는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성전복 대역 시설이 없다. 따라서 의식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식복을 가지고 와야 한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에서 입는 의식복은 마련될 것이다.

성전장단의 제1보좌는 성전 사무장으로 봉사하며 제2보좌는 성전 시설 부장으로 봉사하게 된다.

이 성전은 7월 16일에 힐클리 대관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일곱 차례 성전 헌납 모임을 가졌다. 그날 추가로 두 차례 모임을 더 갖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다섯 차례 모임을 가졌다. 성전은 7월 28일(화요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소규모 성전은 비교적 교회 회원 수가 적고 가까운 장래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힐클리 대관장은 회원들이 성전 축복에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에도 가장 가까운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다. 199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대관장은 2000년에 성전이 100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7월 18일자 처치뉴스 기사 제공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준 옥스 자매 타계



준 옥스 옥스 자매

7월 25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부인인 준 옥스 자매의 장례식이 있었다. 그녀는 일년 이상 암과 투병한 끝에 운명을 달리 했다.

옥스 자매는 1933년 유타 주 프로보에서 일란성 쌍생아로 태어났다. 그녀는 브리감 영 대학을 나왔고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을 만났다.

1952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한 후, 일리노이 주로 이사하였다. 그곳에서 옥스 형제는 변호사 수습 기간을 마치고 시카고 대학에서 법학 교수가 되었다.

1971년에 옥스 형제가 브리감 영 대학의 총학장으로 임명되자 그들은 유타로 되돌아 왔으며, 7년간 재직했다.

옥스 자매는 브리감 영 대학의 총학장 부인으로써 많은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언제나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또한 교회의 보조 조직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였다. 그후, 여섯 자녀들이 성장하자, 지역 단체에서도 봉사하였다.

옥스 형제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1984년 4월까지 유타 최고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옥스 자매는 총관리 역원의 아내로 수많은 교회 회원 및 비회원들과 자신의 간증과 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옥스 자매 남편인 옥스 장로와 모친, 남자 형제 한명과 자매 4명, 두 아들과 네 딸, 그리고 손자 23명과 증손자 한 명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 음악

게리 애반트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은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유럽을 순회하면서 영국의 런던, 벨기에의 브뤼셀, 스위스의 제네바, 이탈리아의 투린과 로마, 프랑스의 마르세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엘 에스코리알 및 마드리드, 그리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공연을 가졌다.

음악회가 열린 지역의 선교부장들의 말에 의하면, 태버나클 합창단의 유럽 순회 공연은 7월 2일 막을 내렸지만 3주간에 걸쳐 태버나클 합창단이 미친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스위스 제네바 선교부의 선교부장인 렉스 제이 알렌은 이렇게 말했다. "이 음악회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실재하고, 훌륭하며, 건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느끼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제네바 음악회에서 보고 느낀 것으로 인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매우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나는 적어도 두 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회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매우 고양되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교양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가진 리셉션에서 나는 국제연합 기구의 고위 관리인 한 숙녀가 태버나클 합창단원 한 사람에게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임에 틀림없어요. 어떠한 것도 선한 느낌을 그토록 강하게 불러 일으킬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합창단원은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 선교부장 엘버트 엠 댄시는 이렇게 말했다. "태버나클 합창단 공연은 교회 회원들에게 사기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합창단의 격조높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여러 대중 매체가 앞다투어 합창단에 대해 다뤘습니다."

댄시 선교부장의 말에 따르면 태버나클 합창

단 음악회에서 한 쌍의 자매 선교사와 어느 비회원 부부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런데 중간 휴게 시간에 비회원 부부의 바로 옆에 앉았던 한 회원이 합창단 음악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했다.

벨기에 브뤼셀 선교부장인 에이치 레이 하트 부장에 따르면 합창단원 한 사람이 선교사들에게 한 사람의 이름을 넘겨 주었는데 그 사람은 7월 15일 현재 제 3도론을 배우게 되어 있다고 한다. 하트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태버나클 합창단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끼친 강력한 영향으로 인해 선교사들은 구도자를 접하는 기회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보고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지요. 브뤼셀, 리제, 앤트워프, 그 밖에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이 음악회에 왔습니다. 그들은 집

(8면에 계속)

다섯 군데의 새로운 지역 조직

대관장단이 5개의 새로운 지역을 조직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28개의 지역이 되었다.

아프리카 지역이 가나 아크라에 본부를 둔 새로운 아프리카 서 지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 남동 지역으로 분리되었다.

태평양 지역과 필리핀/미크로네시아 지역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본부를 둔 새로운 태평양 제도 지역을 조직하기 위해 분리되었다. 원래의 두 지역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본부를 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지역과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둔 필리핀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브라질 지역이 레시페에 본부를 둔 새로운 브라질 북 지역과 상파울루에 본부를 둔 브라질 남 지역으로 분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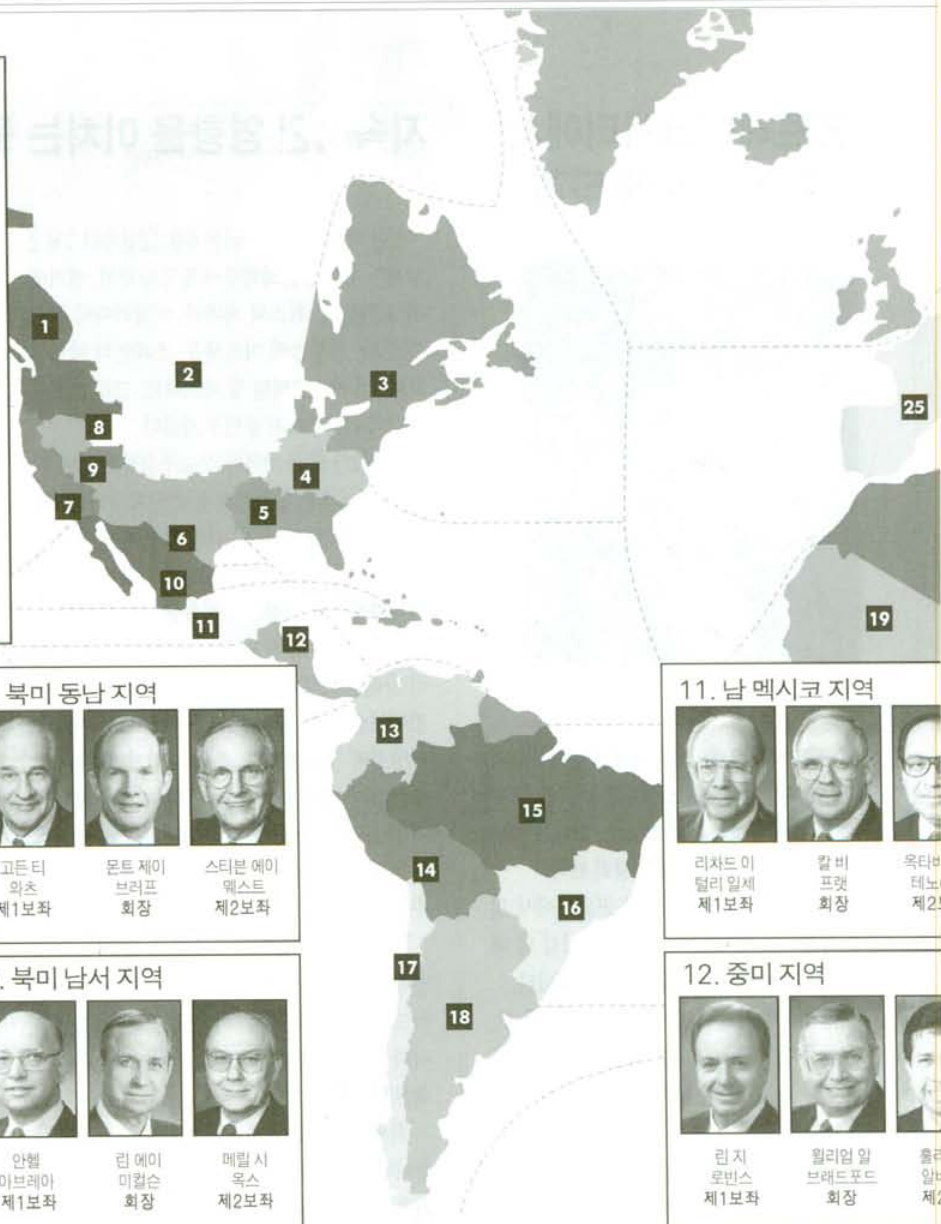
남미 북 지역은 페루 리마에 본부를 둔 새로운 남미 서 지역을 조직하기 위해 분리되었다. 남미 북 지역은 에콰도르 키토에 있는 본부를 두고 있다.

북미 동북 지역과 북미 동남 지역이 새로운 북미 동 지역을 조직하기 위해 분리되었다. 북미 동북 지역과 북미 지역의 회장단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다. 북미 동남 지역 회장단은 현재 조지아 주에 틀랜타에 있다.

새로운 지역 회장단 임무 지명

대관장단은 1998년 8월 15일자로
시행되는 지역 회장단의 변경된 임
무 지명을 발표했다. 모든 지역 회장단은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이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을 가리킴



1. 북미 서북 지역



렉스 디
파네가 제1보좌
에프 앨빈
하몬드 회장
다리
토블러 제2보좌

5. 북미 동남 지역



고든 티
와츠 제1보좌
몬트 제이
브러프 회장
스티븐 예이
웨스트 제2보좌

11. 남 멕시코 지역



리차드 이
덜러 일세 제1보좌
칼 비
프랫 회장
옥타비
테노 제2

2. 북미 중앙 지역



케네스
존슨 제1보좌
휴 더블류
피녹 회장
요시히코
기쿠찌 제2보좌

6. 북미 남서 지역



안젤
아브레아 제1보좌
린 에이
미칼슨 회장
매릴 시
웁스 제2보좌

12. 중미 지역



린 치
로빈슨 제1보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회장
홀리
알바 제2

3. 북미 동북 지역



도널드 엘
스타펠러 제1보좌
제이 이
젠슨 회장
제리 제이
코울먼 제2보좌

7. 북미 서 지역



존 엠
매드슨 제1보좌
존 비
디슨 회장
세실 오
사뮤엘슨 제2보좌

9. 남 유타 지역



데니스 비
노인슈완더 제1보좌
벤 비
뱅크스 회장
닐 엘
앤더슨 제2보좌

13. 남미 북 지역



로버트 제이
웨튼 제1보좌
프란시스코
제이 비나스 회장
윌트
콘존 제2

4. 북미 동 지역



로렌 시
던 제1보좌
존 케이
커릭 회장
더블류 돈
레드 제2보좌

8. 북 유타 지역



로버트 케이
델린비호 제1보좌
알렉산더 비
모리슨 회장
존 에이치
그로버 제2보좌

10 북 멕시코 지역



데일 이
밀러 제1보좌
에란 에이
클 회장
토마스
발데스 제2보좌

14. 남미 서 지역



네드 비
루에시 제1보좌
리차드 제이
메이너츠 회장
두
제

24. 북유럽 지역



더블류 콜프
카
제1보좌



스펜서 제이
콘디
회장



*존
맥스웰
제2보좌

26. 동유럽 지역



에프 엔자오
부시
제1보좌



찰스
디디에이
회장



웨인 엠
한콕
제2보좌

27. 북 아시아 지역



엘 에드워드
브라운
제1보좌



엘 라이오넬
켄드리
회장



이 레이
베이트먼
제2보좌

25. 서유럽 지역



진 알
콕
제1보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에프 버튼
하워드
제2보좌

28. 아시아 지역



리차드 이
콕
제1보좌



크리 웰
코포드
회장



에이치 브라이언
리차즈
제2보좌

5. 북 브라질 지역



이 켄트
콜러
제1보좌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회장



*미람 비
소아레스
제2보좌

3. 남 브라질 지역



토스 엠
베오름
제1보좌



더블류 크레이그
즈워크
회장



*아드레마
다미아니
제2보좌

18. 남미 남 지역



리처드 디
올레드
제1보좌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회장



*후고 에이
카르론
제2보좌

20. 아프리카 동남 지역



레이 에이치
우드
제1보좌



데니스 이
시먼즈
회장



크리스토틀
콘든 이세
제2보좌

22. 태평양 제도 지역



로널드 티
할버슨
제1보좌



틴 쿡
회장



엘 엠
몬슨
제2보좌

칠레 지역



엘드 엠
레일라
제1보좌



달라스 엠
아치볼드
회장



*에두아르도 에
아리마르티네
제2보좌

19 아프리카 서 지역



글렌 엘
페이스
제1보좌



제임즈 오
메이슨
회장



엠마뉴엘 오
오파라 일세
제2보좌

21. 필리핀 지역



듀엔 비
체라드
제1보좌



셸던 에프
차일드
회장



말 알
크리스텐슨
제2보좌

23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지역



브루스
하헨
제1보좌



본 제이
페더스턴
회장



*피 브루스
미첼
제2보좌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이 스페인 바셀로니에서 주간 텔레비전 방영을 위해 공연을 갖다. 이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의 순회 공연 동안 가진 세 차례의 텔레비전 방영 중 하나임. 사진 촬영: 게리 애반트, 처치 뉴스 사진 제공

으로 돌아갈 때 영적으로 고양되고 교화되어서 입으로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주님의 영을 지닌 채 돌아왔습니다. 비회원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구도자였던 사람들이 가운데는 선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방문해 달라고 초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선교부장 리오네 제이 플로시는 이렇게 말했다. “로마에서 말일성도 교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0여년간 이곳에서 선교 사업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과 직장인들에게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비교적 생소하지요. 그러나 태버나클 합창단을 동반한 경이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지요. 음악회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과 저명 인사들이 우리의 선교사들을 찾아 교회의 표준 토론을 듣고자 선교사들과 시간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번 음악회에 참석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선교부를 축복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 관리들과 유엔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태버나클 합창단이 우리에게 남긴 최대의 혜택과 가장 뜻깊은 축복은 우리가 쌓아 놓은 토대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이탈리아에 빛을 가져와 우리를 드러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선교부의 스티븐 알 헬린버거 선교부장은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구도자가 있는데 교회 모임에는 참석하나 침례받았다고 약

속하는 것을 꺼리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그 구도자와 그의 부인을 데리고 태버나클 합창단 음악회에 참석한 후에 그는 자신이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11일에 침례를 받았고 그의 부인도 침례받기 위하여 현재 준비중에 있다.

헬린버거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태버나클 합창단 음악회는 전도 목적뿐 아니라 교회를 강화시키는 의미에서도 회원과 선교사들을 북돋아 준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태버나클 합창단의 영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합창단이 떠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들의 박수 갈채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태버나클 합창단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태버나클 합창단을 동반한 영이 이곳 우리 회원들 위에 머물렀습니다. 선교사들은 100명 가까운 구도자들을 접했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태버나클 합창단의 마드리드 공연의 여파가 앞으로 여러 달 동안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버나클 합창단 공연은 모든 의미에서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기적인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북부 선교부의 켈빈 시 클레그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이 어떤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이곳 리스본 음악회에 참석한 후 선교사들에게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 토론을 빨리 끝내 주세요. 나도 교회 회원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레그 선교부장은 음악 비평가 서너 명이 태버나클 합창단 음악회에 온 것을 지켜 보았다고 한다. “나는 그들의 몸짓을 통해 합창단 공연을 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프로그램의 두번째 차례가 끝나자 그들은 자세를 바로 하고 주의깊게 메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그들이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서 ‘브라보’, ‘앵콜’ 하고 외쳤습니다.”

클레그 선교부장은 또 이렇게 말한다. 태버나클 합창단이 구도자들과 다른 비회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회원들에게 보다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회원들이 개척자들입니다. 이곳의 교회 회원수는 극히 소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공연 결과, 포르투갈 회원들은 자신들이 훨씬 더 큰 집단에 속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리스본 북부 선교부의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말일성도들이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자신들의 주위에 다른 말일성도들이 있음을 보면서 높은 긍지와 명예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정말 회원들이 필요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처치 뉴스 기사 제공. 1998년 7월 18일

통가의 말일성도들이 국왕의 탄신일을 기념함

그것은 통가 말일성도들이 자신들의 국왕의 생일을 경하하는 선물로 봉사를 했다. 회원들은 6월 13일 함께 모여, 타우파 아하우 투포우 4세 국왕의 80회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각자 80분간씩 봉사하였다.

그들은 궁전 뜰에 꽃을 심고 청소를 하며 장애인들의 가정, 부락 내의 공동 묘지, 도로변, 경찰서, 병원 및 학교에서 청소를 했다.

전체적으로는 6개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4,500시간 이상 봉사하였다. 남서 태평양 북부 섬에 거주하는 106,000명의 인구 가운데 40,000명이 말일성도 교회 회원들이다.

교회 회원인 리마 시카는 이렇게 말한다. “오전에는 좀 추웠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사랑과 봉사 정신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추위

를 느끼지 않는 듯이 보였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와 그의 부인 바바라, 그리고 칠십인 정원회의 브루스 시 하펜 장로와 그의 부인 마리는 6월 19일 국왕 알현 허락을 받고 국왕께 여러 봉사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증정하였다. 그들은 또한 액자에 넣은 가족 선언문과 바다 갈매기라는 제목의 조각상 그리고 대관장단이 드리는 국왕 생신 축하문도 함께 증정하였다.

페리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국왕은 매우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초 몇 분간만 알현할 계획이었으나, 그분은 약 45분 동안이나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페리 장로는 국왕이 말일성도 교회와 교회에서 가정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국왕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통가 회원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왕은 80세 고령으로 매일같이 트레드밀(회전식 벨트 위를 달리는 운동 기구)위에서 운동을 한다"고 페리 장로는 말한다.

페리 장로는 통가 회원들이 그 나라에서 크게 존경받고 있는, 인정 많은 지도자인 국왕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갖게 돼 마음이 들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봉사가 가져 온 최대의 유익은 그들이 협동하여 일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카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맞아요,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일하며 모든 순간을 일하며 즐거워 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신앙과 순종심으로 빛이 났어요."

한 회원은 자신들의 봉사 행위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유희처럼 느껴졌다고 말한다. 또 다른 회원은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완성된 일에 감탄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즐거웠다고 말한다.

페리 장로는 통가 여행 기간 동안 교회 설립 대학도 방문하고 지역 대회에도 참석하였다.

페리 장로는 통가 회원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처치 뉴스 기사 제공, 1998년 7월 11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최근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하는 교회 역사 예술 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시회의 제목은 '유타 내의 러시아, 러시아내의 유타'였다. 전시된 공예품, 사진, 일기장, 포스터 가운데는 브리감 영 2세가 러시아 피터스버그에 체류시



통가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국왕 80회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각자 80분씩 봉사했으며, 전체적으로는 4,500 시간 이상 봉사하였다.

그의 아버지 브리감 영에게 보낸 서신(1866년)과 쓰러진 소설가 레오 톨스토이의 딸 태티아나 톨스토이가 수사 영 게이즈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15세기의 러시아 황제가 톨스토이 가족에게 하사한 성스파이리돈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밖에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과 비 와이 유 대학 공연단이 러시아에서 순회 공연을 했음을 보여주는 러시아어 교회 출판물과 포스터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텍사스주 휴스턴과 뉴 멕시코 앨버커키에서 성전 기공식을 갖다.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오늘 이곳에 참석한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지난 6월 13일 북미 서남 지역의 우거진 숲속 텍사스 휴스턴 성전 부지에서 성전 기공식에 참석하고자 모인 약 600명의 회원들 앞에서 이 지역의 지역회장단 제 1보좌인 안헬 아브레아 장로가 한 말씀이다. 이곳의 기공식에 참석한 인원이 제한되었다. 이는 휴스턴 서북쪽 근교에 위치한 성전 부지 근처에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장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남 기도는 칠십인이자 북미 남서 지역 회장인 린 에이 미켈슨 장로에 의해 행해졌다. 미켈슨 장로는 성인 회원들의 모범적인 성전 참석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자녀들은 우리가 보여 주는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헌신적 삶을 선포하고 바르고 고귀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칠십인이자 북미 남서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새로운 성전 건립을 앞두고 회원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 봐야 할, 다음의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제안했다. "향후 2년 동안 나는 내 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면을 신경써야 하는가? 내가 버려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양보할 필요가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더 하여야 하는가? 나의 성품은 진실로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지닌 그런 성품인가?"

이곳 성전 부지를 교회에 매도한 사람은 기공식 때 열 삼 중 한 삼을 쓰던 현지의 택지 개발업자인 돈 헨드였다. 미켈슨 장로는 헨드씨가 "당시에 자신도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인해 이곳 토지를 성전 건립을 위하여 그대로 놔두었었던"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기공식 전에는 성전 부지 근처에서 브리핑 행사가 있었다. 그 브리핑에는 실업계, 정부, 언론계 대표 서너 명이 참석했었다.

휴스턴 성전 지역은 28개 스테이크를 관할한다. 바튼 루즈 루이지애나 스테이크의 브랜트 라슨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스테이크에서 델러스 성전까지 가는 데는 9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휴스턴 성전으로 오는 데 5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겠군요."

북미 남서 지역 회장단은 휴스턴 성전 기공식



숲이 무거진 텍사스 휴스턴 성전 부지 기공식에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른다. 사진 촬영: 조이스 울프

을 가진지 일주일 후인 6월 20일 토요일에 앨버커키 뉴 멕시코 성전 기공식을 가졌다. 이 기공식에는 약 6,500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600명의 청소년들로 이뤄진 합창대가 노래를 불렀다.

미켈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같은 특별한 시간에 우리는 이 사업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따뜻하고 영광스런 아침에 들으셨던 것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느낌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은 장차 여러분이 일생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브레아 장로는 회원들에게 "나는 이 날까지 어떻게 지내 왔는가"하고 자문해 보라고 권고하였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디의롭게 되라고 촉구하였다.

크리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성전은 사람들이 세속을 벗어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에 자신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질서의 집입니다."

앨버커키 성전이 이 도시의 동북쪽에 위치한 부지에 완공되면, 뉴 멕시코의 15개 스테이크 지역과 그 외 애리조나와 콜로라도의 일부 지방에 거주하는 약 55,000명의 회원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1998년 11월호의 '함께 나누는 시간' 에 나오는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성도의 벗 1998년 11월호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 제언에 부합되는 공과나 지침이나 활동을 위해서는 11월호 어린이란 6-7페이지에 나오는 '감사 표시를 함'을 참조한다.

1. 다음 노래를 가르친다: '건강과 힘' (어린이 노래책, 영어, 17쪽) 어린이들에게 나눠 줄 종이 쪽지들에 다음 성구들을 각각 따로 써 놓는다: (1)야곱서 4:3 야곱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 (2)이더서 6:8-9 야렛인들이 여행 도중에 보호받고 빛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림; (3)모사이아서 24:20-22 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짐이 가벼워지고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에 대해 감사를 드림; (4)교리와 성약 89:10-12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음식물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려야 함; (5)교리와 성약 59:7 우리는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함(교성 59:15-21도 참조할 것). 칠판에 '_____에 대해 감사함'을 쓴다. 각 반원들에게 첫번째 성구의 쪽지를 나누어 준다. 반원들에게 경전에서 그 성구를 찾아 읽고, 성구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감사드렸는지(혹은 무엇에 대해 감사드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지)를 마음으로 판단해 보라고 말한다. 칠판에 그려진 빈 칸에 정답을 적는다. 제일 먼저 대답한 반원에게 감사에 관한 노래 한 곡을 선창하라고 부탁하고 나머지 반원들은 그를 따라 부르게 한다. 나머지 성구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 한다.

2. 시편은 찬양문이다. 예로부터 시편의 내용을 음악화한 경우는 많다. 와드 또는 지부의 성인 또는 어린이에게 부탁하여 '주님은 내 목자니' (찬송가, 99장)를 부르게 하고 어린이들은 각자 경전을 펴서 시편 23장을 따라 읽으라고

말한다. 노래 부른 사람에게 감사 표시를 한다. 반원들에게 시편에는 우리 마음에 강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아름다운 말로써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는 성구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한다. (시편 24:1-4; 27:1; 100장 참조) 어린이들이 시편 23장을 읽거나 부른 후에 각자 마음 속에 떠오른 그림을 그리라고 어린이들에게 말한다. 어린이들 가운데는 시편 23장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구절마다 그에 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피아노 연주자에게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도록 부탁한다.

3. 반원들에게 어떤 그룹이 다른 사람에게서 봉사를 받았으나 그 중 한 사람만 감사 표시를 하는 상황을 꾸며 간단히 연극처럼 해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공과가 끝났을 때 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만 선생님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경우, 차를 타고 축구장에 도착했을 때 팀원들 중 한 사람만 운전수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경우, 파티가 끝났을 때 손님 한 사람만 주인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경우, 혹은 게임이 끝났을 때 선수 한 사람만 코치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경우 등이다. 반원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은 경전의 어떤 이야기를 생각나게 해주느냐고 물어 본다. 열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누가복음 17:11-19) 반원들에게 우리는 되돌아와서 감사 표시를 한 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일뿐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경우 우리는 보다 행복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반원들이 상황을 다시 꾸며서 모든 아이들이 '감사합니다'를 말하게 한다.

영어 회화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는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입시 또는 취직을 앞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상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영어 회화의 필요성이 없는 가정 주부 및 자영업자들까지도 대부분 영어 회화 교재 한 두 권을 갖고 있거나 학원 강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세계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쉽고도 훌륭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회의 영어 회화 프로그램 운영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자 주-

서울 선교부

서울 서선교부

영동스테이크

분당 지부 수요일 저녁 7시 0342-753-2805
서초와드 목요일 저녁 7시 02-587-3897
성남와드 목요일 저녁 7시 0342-47-1801
성남지부 금요일 저녁 7시 0342-753-2805
신강지부 수요일 저녁 7시 0347-792-8832
영동와드 수요일 저녁 7시 02-546-3688
오른와드 수, 금요일 저녁 6시 30분 02-409-4164
이천지부 수, 금요일 저녁 7시 0336-635-9340
잠실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2-423-5753
천호와드 금요일 저녁 7시 02-485-6907

인현스테이크

가정지부 화, 금요일 저녁 7시 032-578-8188
계산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32-545-0166
답동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32-765-5967
부평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32-524-3605
연수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32-422-0260
용현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32-886-5979
주안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32-427-3040

서울서스테이크

노량진와드 수, 금요일 저녁 7시 02-8115-0364
봉천와드 수, 금요일 저녁 7시 02-889-8024
사당와드 수, 금요일 저녁 7시 02-525-5939

안양스테이크

과천와드 수, 금요일 저녁 7시 02-502-4705
시흥와드 수, 금요일 저녁 7시 02-804-0152
안산와드 수, 금요일 저녁 7시 0345-87-4784
만양와드 수, 금요일 저녁 7시 0343-443-2535

수원스테이크

매년와드 수, 금요일 저녁 7시 0331-212-6271
신용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331-252-5813
안성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0334-73-1529
오산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333-666-3307
월인지부 수, 금요일 저녁 7시 0335-35-9667
평택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0333-665-9233

강서스테이크

강서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2-647-9400
개봉와드 화요일 저녁 7시 02-682-0089
김포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341-82-3408
부천와드 화, 토요일 저녁 7시 032-655-4776
소래지부 목요일 저녁 7시 032-698-8427
신길와드 목요일 저녁 7시 02-643-6370
신정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02-692-3736
화곡와드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02-692-7937

서울북스테이크

근촌지부 수,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30분 0348-943-9908
북면와드 화요일 저녁 6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30분 02-355-1761
마포와드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02-392-0407
설산와드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02-3142-1648
불광와드 수요일 저녁 6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30분 02-355-4820
신촌와드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02-3142-1648
원당와드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0344-979-4127
일산와드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0344-979-4126
중정와드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02-363-2958
홍제지부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3시 02-355-4820

강릉지방부

강릉지부 수요일 저녁 6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 0391-643-2738
동해지부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0394-32-2932
삼척지부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3시 0397-73-0058
속초지부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3시 0392-32-6103
주문진지부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저녁 5시 30분 0391-661-2586

원주지방부

영월지부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저녁 7시 0373-73-1492
원주지부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전 10시 0371-764-2893
태백지부 금요일 저녁 7시 0395-52-4751

서울동스테이크

도봉와드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02-955-6086
홍두천지부 토요일 오후 5시 0351-871-8059
면목와드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30분 02-207-9891
미아와드 토요일 오후 5시 02-918-1873
병동와드 토요일 오후 5시 02-3492-7276
상계와드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30분 02-937-6928
의정부지부 토요일 오후 5시 0351-872-0054
잠원지부 토요일 저녁 7시 02-941-1416

동대문스테이크

교문지부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30분 0346-63-8819
용두와드 금요일 저녁 7시 02-923-2514
이문지부 수요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30분 02-921-2990
장안와드 토요일 오후 6시 02-923-2514
춘천와드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0361-52-8578
태릉와드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30분 02-433-9976

서울서스테이크

성철와드 목요일 저녁 7시 02-732-3596
성동와드 금요일 저녁 7시 02-235-8430
신당와드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02-253-5755
청문와드 금요일 저녁 7시 02-732-6656
화양와드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3시 02-235-7628

부산 선교부

부산 서 지방부

괴정 지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30분 051-204-0905
구로 지부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051-334-0878
김해 지부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0525-32-5227
대신 지부 수요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 051-242-6819
영도 지부 수요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 051-416-6278

대구 스테이크

경산 지부 수요일 오후 6시, 금요일 저녁 7시 053-816-2411
경주 지부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30분 0561-743-3298
구미 지부 수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0546-52-1889
김천 지부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2시 0547-33-8005
대명 와드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2시 053-655-0467
수성 와드 금요일 저녁 7시 053-752-2007
안동 지부 토요일 오후 2시 30분 0571-821-6631
영천 지부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0563-334-7959
중리 와드 수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5시 053-553-6192

마산 스테이크

거제 지부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0558-688-4447
경화/진해 와드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3시 0553-546-7589
마산 와드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0551-42-7232
밀양 지부 수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삼천포 지부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4시 0593-32-3502
진주 와드 수요일 오후 4시 30분 0591-742-7223
창원 와드 수요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30분 0551-77-1793
충무 와드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7시 30분 0557-645-8836

부산 스테이크

광안/해운대 와드 화요일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7시 051753-6335
항아리 와드 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052-232-3226
수정 와드 수요일 오후 6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30분 051-468-2623
신정 와드 토요일 오후 6시 30분 052-273-7801
양산 지부 토요일 오후 3시(기초), 5시(상급) 0523-385-2234
연산 와드 화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5시 051-863-8465
온천 와드 수요일 오후 5시(어린이), 6시 30분(성인),
토요일 오후 2시 051-553-8490
학성 와드 목요일 오전 10시(주부만),
토요일 오후 5시 30분 052-298-2848

제주도

서귀포 지부 목요일 오후 5시(어린이),
토요일 오후 3시(일반) 051-242-6819
제주 지부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후 2시 063-52-5861

순천 지방부

광양 지부 토요일 오후 2시 0667-763-0752/763-6592
순천 지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0661-744-2419/745-1377
여수 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0602-42-2581/83-1148
여천 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0662-83-2021/831148

대전 선교부

청주 스테이크

북대 와드 화요일 오후 6시 30분 0431-262-7216/276-3686
상당 와드 목요일 저녁 6시 30분 043157-5776/276-7368
석교 지부 0431-294-3779/276-7368
예성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441-44-9247/43-1682
재천 지부 화, 금요일 오후 6시 30분 0443-644-0842/645-6941
천안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417-567-1487/565-6976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41652-4968/52-4960
금산 지부 화, 목요일 오후 6시 30분 041253-4251/52-0093
논산 지부 화, 금요일 저녁 7시 046132-1142/735-2058
신성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42-672-4056/628-1482
신화/문산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42-256-9088/257-3033
유성 와드 화, 목요일 오후 6시 0421861-5524/822-4820

충청 지방부

대전 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0452-935-8240/934-2212
서산 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0455-664-3561/662-0515
운양 지부 토요일 저녁 7시 0418-44-4101/43-6711
홍성 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0454-32-6730/32-1294

전주 스테이크

군산 와드 화, 금요일 오후 6시 0654-62-8756/465-1469
김제 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0658-5546-0889/44-0397
남원 지부 화, 목요일 저녁 7시 30분 0671-32-0906/32-2854
노송/전주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652-254-8416/72-6103
이리 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653-51-4073/51-5210
정읍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30분 0681-32-3138/32-3915
종암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30분 0652-88-6018/222-1620

광주 스테이크

금성 지부 화, 목요일 오후 6시 0613-33-0696/944-9437
농성 와드 화, 금요일 오후 6시 30분 062-32-3055/362-0019
목포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30분 0631-72-6973/72-6597
송정 와드 화, 목요일 저녁 7시 062-941-2308/944-9437
첨단 지부 화, 금요일 저녁 7시 062-971-7096/362-0019
송정/백운 와드 화, 금요일 오후 6시 062-222-9065/225-0530
동향 와드 화, 금요일 저녁 7시 062-267-8620/267-2677
해남 지부 화요일 저녁 7시 0634-35-1436/32-4670

서울 선교부 영어 외화

서울 선교부에서는 모든 영어 회화 반에서 교재로 New American Streamline과 영문판 물문경을 사용하고 있다. 1시간 30분 정도의 수업 시간 중, 45분 동안은 New American Streamline을 활용해서 가르치고, 남은 45분은 영문판 물문경을 사용하여 가르친다. 지역에 따라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영어 회화 반을 하고 있으며, 보통 2~3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반원들의 수준에 따라 가르치고 있다.

한 달에 한번은 각 지역마다 특별 영어 회화 반을 운영한다. 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말일성도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들은 주중에 하는 영어 회화 반과는 달리 특별한 연사들을 초대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 또는 다른 활동들을 한다. 실제로 용산 지방부의 회원으로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하는 피 제이 로저스(P. J. Rogers) 형제와 친구 연예인들을 초대할 가운데 가진 특별 영어 회화 반 모임에는 영어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또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것 외에도 선교사들은 정해진 봉사 시간 범위 내에서 종로 구청, 원주 시청, 중부 소방서, 태백 시 복지 회관 등 공공 장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다.

또한 영어 회화 반을 좀더 널리 알리기 위한 시도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서울 선교부장단 제1보좌인 허용환 형제가 교육 방송에 출연하여 영어 회화 반에 대한 광고를 한 바 있으며(성도의 벗 7월호, 교회 소식 참조), 최근에

는 동아일보에도 광고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영어 회화 반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었고, 실제로 영어 회화 반 참석자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종자들의 수가 많이 증가되었다.

대전 선교부 영어외화

대부분의 영어 회화 반에서 American Streamline과 각 선교사 별로 나름대로 복음과 연관 지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 Free Talking반에서는 주로 특별한 주제의 이야기나 신문 사설, 성경과 물문경의 이야기 등을 가르치고, 어린이 반이 있는 곳에서는 기도하는 법과 짧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어린이 찬송가나 노래 등을 가르친다. 기초반에서는 간단한 대화와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나눌 기회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영어 회화 반 시간에 복음의 원리에 대해 간증하고, 간증한 후 관심 있는 반원들에게 토론을 권유한다. 어떤 선교사는 영어 회화반 시간에 자신이나 다른 무엇에 관한 것이나 5가지 질문을 만들도록 한 다음 접견 방식처럼 따로 따로 불러서 1대 1로 질문에 대한 대화를 하고, 거기서 복음을 소개하고 토론을 들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선교사들이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기보다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려 노력하고 있으며, 선교사 대회마다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영어 회화 반 운영에 관한 훈련을 받고 있다.

선부장의 아내인 와델 자매 역시 영어 회화 반을 가르치는데, 항상 경전을 사용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부산 선교부에서는 'Talk Your Head Off'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 서 선교부에서는 'New American Streamline'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영어 외화 반을 통한 선교 사업

-영동 스테이크 분당 지부-

이원강 (영동 스테이크 분당 지부 선교책임자)

영동 스테이크 분당 지부에서는 선교사를 통한 사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리고 선교사업의 촉진을 위해 영어 회화 반을 운영할 수 있게 오랫동안 갈망해 왔다. 그 동안 자체 건물에

없이 성남중앙 지부에서 정규 교회 모임을 갖는 관계로 분당 지역 내에서 영어 반 개설을 위한 장소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 내의 여러 사설 사회 복지 기관 등을 방문하여 장소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자체의 영어 반과 중복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여의치 아니하였고, 마침내 동사무소의 회의실이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해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거 때가 되면 약 한달 간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회화반 운영 도중에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설이 지연되어 오다가, 드디어 지난 5월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부터 야탑역 세진 컴퓨터랜드 뒤에 위치한 야탑 동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2층 회의실에서 매주 1회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영어 회화반을 운영하게 되었다.

야탑 동사무소의 위치는 신축중인 교회 건물과 비교적 인접한 곳에 있고 전철역 근처여서 찾기 쉽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에 선정되었는데 동사무소 관계자들은 교회와 아무런 연고도 없었으나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위해 기꺼이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회화반은 처음에는 2명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한국인 배기수 장로 및 외국인 아드(Ard) 장로 외 성남와드 소속 외국인 장로 2명 등 모두 4명이 담당하고 있고 A, B, C 반 및 어린이 반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데 선교사들의 진지하고도 희생적인 노력과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인해 참석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어서 회화반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평균 참석 수는 약 50명 정도 되며, 참석 인원의 확보는 비록 신문 등 지역 광고 신문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우 용이하였다. (신문사 담당자와 유선 상으로 의뢰 후 광고 문안을 팩스로 전송하여주면 1주일간 무료 게재하여 줌) 아쉬운 것은 아직 준비된 구도자를 찾지 못한 것인데 공부하는 장소가 교회 건물과 연계성이 없어서 예배 모임에 초대하고 안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회 시에 찬송가를 부를 수 없어서 영적인 분위기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앞으로의 반 운영은 고적답사 등 별도의 활동 모임을 통하여 우정 증진과 복음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영동 스테이크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영어 발표 대회에도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3월경으로 예정된 지부의 신축 건물로 입주하기 위하여

면 영어 회화반이 선교사업의 훌륭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크게 기대되고 있다.

영어 외화반을 통한 변화

영동 스테이크 이천 지부 최정옥 형제

처음 최정옥 형제는 교회에 대해 조금 두려움이 있었지만 영어 회화 반을 통해서 선교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최 형제는 선교사들과 만나서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했고 물문경을 받았다. 그는 교회의 진실함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해 매일 물문경에 대해 기도하고 또한 읽고 있다.

영동 스테이크 성남중앙 지부 김유진 자매

영어 회화 반에 참석하면서 김유진 자매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김 자매는 1997년 11월에 침례를 받았다. 그로부터 김 자매는 아주 훌륭한 활동 회원이 되었으며 두 명의 여동생이 교회에 참석하는 축복을 받았다.

안양 스테이크 안양와드 전영숙 자매

전영숙 자매는 중학생이었을 때 영어 회화 반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두려웠다. 후에 전 자매는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몰랐다. 전 자매는 선교사들의 무료 영어 회화 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참석하였다. 처음 영어 회화 반에 참석했을 때 첫인상이 아주 좋았다. 전 자매는 교회에서 나온 스티커를 보고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녀는 침례를 받았다. 전 자매는 경전을 읽으면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경전 읽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안양 스테이크 안산와드 김진희 자매

영어 회화반에 참석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비디오를 보는 가운데 김진희 자매는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비디오를 보면서 김 자매는 강한 영을 느꼈으며 침례를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눈 수술을 받고 의사는 물속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3월에 침례를 받는 축복을 누렸다. 침례를 받으면서 아무런 신체적인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현재 훌륭한 회원으로 남아있다.

서울 동스테이크

스테이크대회

지난 9월 19~20일 서울 동스테이크에서는 관리 감독단 제 1보좌인 리차드 시 에즐리 감독의 감리 하에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에서는 잘 정리되고 계획된 스테이크 목표를 회원에게 주시시키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권고가 있었다. 역원 훈련 모임에서는 복지 사업은 회원은 온전케 함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며, 미약한 사람이 신권을 소유함으로써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과 대신권 정원회 및 아론 신권 정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되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잘 표현할 것과 빛을 우선 청산할 것, 그리고 가족 선언문을 항상 상고할 것이 강조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윤상진 형제가 장로로, 이충한, 김태기 형제가 대제사로 지지되었다.

아마추어 무선 기사(HAM) 자격자 30여명 탄생



아마추어 무선 기사 자격 시험 준비 반이 관리 본부의 후원으로 8월 19일부터 12시간 동안 서울 동스테이크에서 있었다. 서울 동스테이크 회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마추어 무선사(HAM)인 장위 지부 여운성 형제(서울 지역 비상 연락 책임자)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지난 6월 20일 북아시아 지역 복지 책임자인 히라노 장로의 감리로 열린 지역 복지 평의회에서도 비상 연락망을 갖추는데 아마추어 무선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언급된 바 있었다. 지난 8월 수해 때, 전화는 물론 교통도 두절되어 완전히 고립된 경험에 있는 동두천 배중호 지부장과 의정부 김규태 지부장의 합격은 회원 관리에 무선 통신을 십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시험에서는 동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인 배상기, 송병철 형제 등 30여 명이 합격했다. HAM에 관심이 있는 회원은 여운성 형제(914~7858, 011~794~7858)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이우영)

서울북스테이크

모래내 지부가 성산 와드,

용계지부가 용계와드로 승격

서울 북스테이크는 최근 지역 회장단으로부터 모래내 지부와 용계 지부의 와드 승격을 승인 받고 성산 와드와 용계 와드로 명명했다.

이와 관련 성산 와드는 10월 11일 와드 승격 대회를 가졌으며 초대 감독에는 김우석 지부장이, 제 1보좌에 최홍기 형제가, 제 2보좌에 한상권 형제가 각각 부름을 받고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용계 와드 승격 대회는 11월 15일 녹번 와드에서 갖는다. 이는 용계 와드가 교회 표준 건물 건축 공사를 11월부터 갖기 때문이며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녹번 와드 건물에서 모임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녹번 와드는 9시 30분부터 신권회 모임을, 용계 와드는 10시부터 성찬식을 각각 갖는다.

상호부조회 작품 전시회



서울 북스테이크 상호부조회(회장 허민자)는 10월 17일 녹번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자매들의 작품 전시회 및 불우 이웃 돕기 기금 마련 행사를 가졌다.

불광 와드 등 10개 와드와 지부 자매들은 지난 1년 간 정성 들여 만든 옷, 장신구, 생활용품 등을 전시, 판매했으며 벼룩 시장을 열어 중고품을 판매한 수익금과 음식물 판매 대금 등을 모아 불우 이웃을 돕는 데 쓸 예정이다. 이들 자매들

은 매년 훌륭한 작품을 만들면서 자립 정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로 삼고 있다. 이날 전시회에는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 등 신권 지도자들과 각 와드와 지부의 상호 부조회 자매들이 많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후반기 스테이크 선교사대회

서울 북스테이크는 지난 10월 18일에는 불광 와드에서 후반기 스테이크 선교사 대회를 갖고 스테이크 선교사 훈련 모임을 가졌다.

“너희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는 주제의 모임에서 정운원 서울 북스테이크 선교부장은 참석자들에게 구도자 찾기, 회원의 구도자 찾기 지원, 선교사 복음 토론회 지원, 회원 우정 증진 등 스테이크 선교사의 네가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 중인 김평기 형제(금촌), 윤관영 형제(용계), 조현진 형제(마포), 전종숙 자매(원당), 장미자 자매(불광)들은 자신들의 간증을 나누었으며 이준택 스테이크 부장은 성신을 동반자로 하는 봉사(교리와 성약 121:45~46 참조)에 대해 가르쳤다.

안양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대회

지난 9월 19~20일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최운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의 일요일 총회에서는 최근에 개종한 회원들의 가슴에 장미꽃을 한송이씩 달아 주었으며, 그들의 간증을 듣는 기회를 통해 선교사업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상봉, 윤호중, 박도준 형제가 장로 신권을 받았으며, 360여 명의 회원 및 구도자가 참석했다.(심상문)

스테이크부장배 축구대회

지난 9월 26일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안양 학운 공원 운동장에서 스테이크 부장 배 축구 대회를 가졌다.

신권을 지닌 형제들의 우정 증진과 건강 강화,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2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는 시흥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심상문)

수원 스테이크

백합 축제



지난 9월 19일 이용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수원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상호부조회 백합 축제가 열렸다.

이날 1부 순서에서는 각 와드 지부에서 준비한 시화 감상 및 다과가 있었고, 2부에서는 송혜경, 황유선 자매의 사회로 합창 대회가 열렸다.

이날 경연에서 용인 지부는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더했으며, 안성 지부에서는 노래와 율동을 겸하여 참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특별 순서에서는 이슬혜 자매의 첼로 연주뿐 아니라, 조하나·조은비·허은영·허은경·오빛나 자매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감상하였다. 이날, 백합상에는 매탄 와드, 최우수상에는 신평 와드, 우수상에는 권선 와드가 수상하였다.

현혈의 날 행사

지난 8월 15일 수원 스테이크에서는 수원 지역의 성도들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혈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서 공보 위원회에서 적십자사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매년 8월 15일을 스테이크 현혈의 날을 정하여 현혈을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이상호)

음악을 통한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

수원 스테이크 울진 와드 소속 도부민 형제는 지난 8월 1일 문화 예술 회관 대강당에서 노영심과 고전 음악이란 프로에 출연하여 서울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막스브르흐의 콜미드라이곡을 협연하였으며, 연주 실황은 8월 10일에 문화 예술 TV를 통해 전국에 방영되었다. 도형제는 한양대 음대와 하와이 대학원에서 첼로를

전공하여 호놀룰루 심포니 단원을 역임했으며, 콜로라도 아스펜 음악제와 페스티발에서 연주한 경력과 호놀룰루에서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난파 합창단, 부천 시립 합창단 등과 수많은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원 챔버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와드에서는 복음 교리반 교사로 일하고 있다. (윤성찬)

청주 스테이크

제1회 합창 경연 대회

지난 9월 26일 청주 스테이크 센터에서는 스테이크 내의 모든 와드/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스테이크 합창 경연 대회가 있었다. 이번 대회는 청주 스테이크가 대전과 청주로 분리된 후 처음으로 갖는 합창 대회였으며, 각자 열심히 연습한 합창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천안 와드는 "순례자"라는 곡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한별 지부의 "휘훨 날아요", 3위는 복대 와드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차지했다. 특별히 이번에 1위로 입상한 팀은 오는 10월 17~18일 양일간 개최되는 청주 스테이크 대회에서 그 솜씨를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특전을 갖게 되었다. 또한 합창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50여 명의 초등학교 합창단의 "힐라멘의 용사들처럼"이란 합창은 실제로 미래의 힐라멘의 이천 용사를 보는 듯한 강한 영적 감동을 주었다. 이번 합창 대회는 스테이크 내의 모든 회원들에게 더 깊은 우정과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이은숙)

대구 스테이크

후반기 스테이크 대회

지난 9월 19~20일 양일간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대구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스테이크 합창단의 "위대한 주여 들으소서"를 들으면서 시작된 이번 모임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마태복음 29:19)라는 주제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인 차대환 형제, 김향순 자매, 김병욱 자매,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이병만 형제, 김병만 축복사, 리시먼

자매, 리시먼 부산 선교부장의 순으로 말씀과 간증을 들었다. 특별히 김병만 축복사는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부인을 사기 그릇 다루듯 조심해야 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였고, 전정신 스테이크 부장은 "왕의 혼인 잔치 비유"를 인용하면서 성도의 생활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했다. (곽수형)

부산 스테이크

노년의 모임

9월 27일 6시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에서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김종열 장로가 함께 한 가운데 노년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양기옥 스테이크 부장은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전하면서 개인의 걸음의 폭을 넓혀서 신앙의 힘을 키우고 그래서 와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자고 말했다. 김종열 장로는 자녀에게 세상의 부를 물려주기보다는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물려주자며 자녀 교육에 관해 강조했다. 또한 요즈음의 어려운 나라 상황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을 때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이 세상은 영적인 곳인데, 사탄은 세상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나눈다며 우리는 세상을 영적으로만 살자고 권고했다.

이번 특별 노년의 모임은 회원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각오를 새로이 하고, 부산 스테이크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각 와드의 분리에 대한 결심도 새로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희숙)

주일학교 교사 경진대회

9월 27일 부산 스테이크 온천 와드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경진 대회가 있었다.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주최한 이번 모임에서는 각 와드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교사~가장 중요한 부름"의 교재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가르치는 기술을 발표했다. 많은 회원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새로운 교사 자질을 익힐 수가 있었다. (이희숙)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서울 선교부 귀환 선교사모임

9월 20일 부산 수정 와드에서는 전 서울 선교부장이었던 니콜스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귀환 선교사 모임이 있었다. 니콜스 부장은 아들이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를 하고 귀환을 하게 되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기회에 오랜 동안 그리워했던 전국 각지의 서울 선교부 귀환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진 것이다. 모임은 아름다운 중창과 음악과 간증과 말씀으로 채워졌고, 귀환 후에 각자의 와드/지부에서 영원한 동반자와 자녀들과 함께 충실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던 귀환 선교사들이 오랜만에 만나 반가움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니콜스 부장은 건강의 문제로 함께 오지 못한 니콜스 자매의 선교사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귀환 선교사들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2년 후에 다시 방문하여 성장하는 자녀들을 다시 보고 싶다고 전하며 아쉬움 속에 모임을 마쳤다. (이희숙)

서울 서신학 연구원 축제



서울 서신학 연구원 학생회에서는 지난 8월 13~14일, 21~22일 4일 동안 태버나클 축제를 열었다.

13~14일은 9팀이 참가한 가운데 농구 대회가 열린 응원 속에서 펼쳐졌다. 이 대회에서 우승은 북스테이크 불광·녹번 팀, 준우승은 강서 스테이크 신정 지부 팀이, 득점 왕은 영동 스테이크 김현민 형제가 차지했다. 21일에는 카니발이 3시부터 열려 물두더지 게임 및 먹거리 등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 7시부터는 11팀이 참가하여 다양한 장르에서 숨은 실력들을 발휘한 가요제가 열렸으며, 22일은 무도회가 열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한국 선교사 훈련원 213기 6명/ 해외 1명



김수민 장로
서울 영동스테이크
영동 와드
부산 선교부



박유진 장로
서울 동대문스테이크
태능 와드
부산 선교부



오경권 장로
전주스테이크
전주 와드
서울서 선교부



이진희 자매
인천스테이크
부평 와드
대전 선교부



임진희 자매
대전스테이크
공주 와드
서울서 선교부



전성희 자매
순천 지방부
광양 지부
서울서 선교부



손은숙 자매
강릉 지방부
삼척 지부
유타 템플스퀘어
선교부

한국 선교사 훈련원 212기 3명



김원희 장로
강릉 지방부
삼척 지부
부산 선교부



김정아 자매
부산 선교부
제주 지부
서울서 선교부



배재영 장로
강릉 지방부
삼척 지부
대전 선교부

역원 변경

원주 지방부
원주 지방부장: 장현문
(전임자: 박수근)

강서 스테이크
신길 와드 감독: 이상서
(전임자: 김양수)

원주 지방부
원주 지부 지부장: 손정규
(전임자: 장현문)

마산 스테이크
삼천포 지부 지부장: 강지훈
(전임자: 이호범)

동대문 스테이크
태능 와드 감독: 김진상
(전임자: 조봉제)

강릉 지방부
삼척 지부 지부장: 천경호
(전임자: 노현수)

조직 변경

서울 북스테이크
모래내 지부가 성산 와드로 승격
(신임 감독: 김우석)

인천 스테이크
가정 지부가 가정 와드로 승격
(신임 감독: 김순권)